

K-Culture와 한국 현대문학 개관

- **학습 개요**

- 한국 현대문학의 본질과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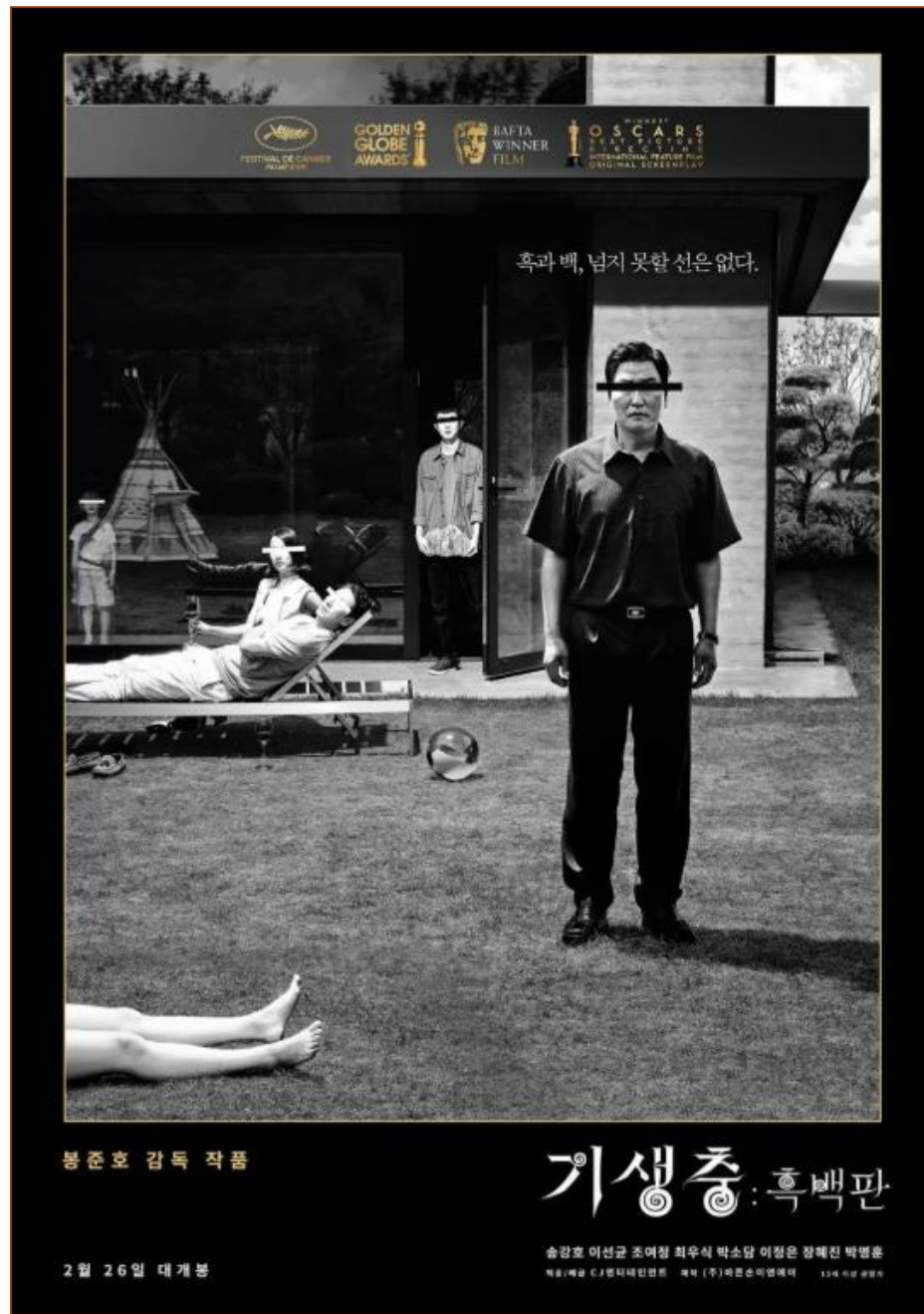
- **학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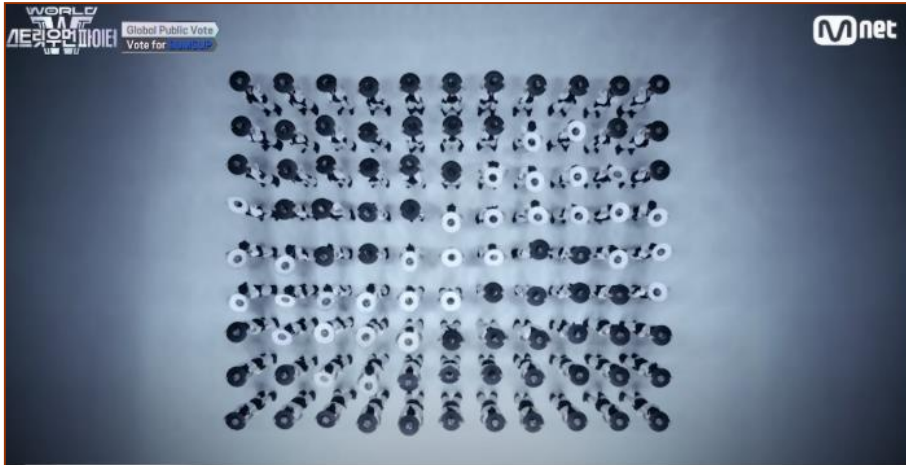
- 한국 현대문학의 본질과 성립 과정을 이해한다.
- 한국 현대문학과 글쓰기의 상관성을 이해한다.

- **학습 내용**

- 한국 현대문학의 본질
- 한국 현대문학의 성립
- 한국 현대문학과 글쓰기
- 한국 현대문학의 양식적 특징

1. K-Culture 동향











다시, ✕ 몸으로



김초엽	김청굴	천선란
저우원	청정보	왕칸위

“우리가 빼앗겼던, 죽어야 했던 몸을 돌려주고 싶어”

한국과 중국 여성 SF작가 6인의
신체성에 관한 사유와 탐색

2025
중국 출간 확정

2. 한국 현대문학의 본질

한국 현대문학의 성격

- 한국 현대문학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문학을 의미함.
- 한국 현대문학은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배경으로 성립함.
- 한국 현대문학은 국문 글쓰기에 의해 양식이 확립되고, 국문(한국어)을 통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데, 신문과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독자와 만나는 양식적 개방성을 추구함.
- 한국 현대문학은 글쓰기와 글 읽기의 개인적인 문자 생활에 근거하여 성립하였는데 시는 음악으로부터 분리되고, 소설은 전문 작가에 의해 창작되며, 희곡 또한 전문 작가에 의해 창작됨으로써 집체적 연행 예술에서 벗어남.

한국 현대문학의 성격

- 한국 현대문학은 서구적인 영향이 작용하는 가운데 변혁의 과정을 거쳐 성립함.
- 서구 문물과의 본격적인 접촉을 통해 기독교 사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예사조를 수용함으로써 동양적인 전통 위에서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서구적 현대성을 함께 추구하면서 문학적 미의식을 확립함.
- 현대문학의 세계는 신화적 상상력에 의해 인간의 삶을 초현실적인 신성의 세계와 함께 그려나간 고전문학과 달리,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실재의 공간에 바탕을 둔 경험적인 일상의 현실에 초점을 맞춤.
- 한국 현대문학의 성립은 근대적 계몽 의식에 근거함.

한국 현대문학과 국문 글쓰기

- 한국 현대문학은 국문 글쓰기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문학으로 한문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할 수 있는 대중적 실용성을 갖추.
- 한국의 민중은 한문 중심의 낡은 사고와 가치에서 벗어나 국문을 통해 새로운 서구의 문물과 제도와 가치를 받아들임.
- 한국 사회는 개화 계몽 시대의 국어 국문 운동을 통해 문화적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립함.
- 개화 계몽 시대의 국어 국문 운동은 문자 생활에서 국문 사용을 보편화하고 국문체를 정착시키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가능하게 함.

- 국문 글쓰기는 일상적인 현실에서 말하는 것과 그것을 글로 쓰는 것이 그대로 일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 국문 글쓰기를 통해 사물을 일상의 언어로 명명하고 그것을 그대로 글로 적을 수 있다는 언문일치(言文一致)의 이상이 실현됨.
- 국문을 통해 삶의 세계에 존재하는 말의 다양성을 문자로 구현할 수 있게 되자, 국문 글쓰기는 일상의 언어에 담겨 있는 사건, 의미, 이념, 감정 등을 구체적인 담론 형태로 산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양식을 만들어 냄.
- 개화 계몽 시대의 논설 양식과 서사 양식은 국문 글쓰기에 의해 새롭게 정착된 글쓰기 양식임.

- 한국 현대문학은 국문 글쓰기를 기반으로 새롭게 형성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학 양식의 존재 방식과 관련하여 두 가지 변화 과정을 겪음.
- 구술문학의 설화성으로부터 기록문학의 문자성으로의 전환 과정.
- 양식의 고정성으로부터 개방성으로의 변화.
- 문학에 있어서의 구술적 요소의 극복은 현대문학이 글쓰기와 글 읽기라는 개인적인 활동에 의해 성립되는 것임을 보여줌.
- 문학 양식의 개방성에 대한 지향은 한문학의 형태적 고정성을 극복하고 형식과 정신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과정을 의미함.

3. 한국 현대문학의 전개 양상

개화 계몽 시대의 문학

- 한국 현대문학이 성립되기 시작한 첫 단계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로, 이 시기의 문학을 개화 계몽 시대의 문학이라고 함.
- 이 시기의 문학은 전통적인 문학 양식의 근대적인 변혁과 새로운 외래적인 문학 양식의 수용 과정을 보여줌.
- 전통적인 시가 형태인 시조가 창곡과 분리되어 시 형식으로 고정되고, 소설의 이야기에서 비현실적인 초월적 세계의 개입이 사라지고 일상의 삶이 이야기의 핵심을 이루고, 희곡은 집단적 연희 양식에서 개별 작가의 창작으로 변화함.
- 문학을 통하여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계몽 의식을 표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남.

- 개화 계몽 시대에 전통적인 문학이 근대문학으로 변혁을 이루게 된 것에는 신교육과 국어 국문 운동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임.
- 이 시기의 새로운 문학 양식은 대체로 국문체를 수용함으로써, 국문체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문학의 확이 가능하게 된 것임.
- 이 시기의 문학은 새로 등장한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만세보>, <대한민보> 등의 신문을 통해 사회적 기반을 확보함.
- 새로운 매체 등장과 함께 전문적인 작가층이 형성되고, 새로운 인쇄술의 도입과 상업 출판사의 등장으로 문학 작품의 상업 출판이 가능해짐.

- 개화 계몽 시대의 문학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은 전통적인 시가 형태의 근대적 변모와 새로운 시가 형태의 등장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임.
- 조선 시대 시가 문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시조와 가사는 새롭게 시 형식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함.
- 창가와 신체시는 새롭게 등장한 시가 문학 양식으로 근대적이 자유시의 형성에 크게 이바지함.
- 전통 시가의 고정적인 율격에서 벗어나 자유시의 형태에 접근한 새로운 신체시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후 새로운 장르적 가능성을 실험함.

- 개화 계몽 시대의 서사 양식으로는 전기, 우화, 신소설 등이 있음.
- 전기는 애국 사상의 계발, 민족의식의 각성 등 계몽적 의도에 의해 창작되었는데, 장지연의 <애국부인전>, 신채호의 <을지문덕> 등이 있음.
- 우화는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으로 인간 세상의 도덕적 타락과 혼란을 비판하는 동물들의 연설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음.
- 우화의 형식과 가까운 몽유록으로 신채호의 <꿈하늘> 등이 있는데, 현실 상황을 꿈의 장면으로 역전시켜 꿈속에서 서사적 자아의 이상과 의지를 표현함.

- 신소설은 이인직, 이해조, 최찬식, 김교제 등 직업적인 작가층의 형성과 함께 대중적인 독자 기반을 확보한 서사문학 형식임.
- 이인직의 <혈의 누> <치악산> <은세계>, 이해조의 <구마검> <자유종> <화의 혈>, 최찬식의 <추월색> 등이 대표적인 신소설임.
- 신소설은 국문체를 기반으로 대중화되었으며, 당대적인 현실의 삶을 기반으로 문명개화의 이상을 그램.
- 신소설에선 비현실적인 초월적인 세계가 소설의 이야기에서 제거되고, 시간의 역전적인 전개를 활용한 소설 구성의 기법이 처음 나타났으며, 언문일치의 산문체에 접근함으로써 근대소설의 형태에 가까워짐.

- 개화 계몽 시대에는 전통적인 창극의 발전과 함께 일본의 신파극이 수입되었음.
- 이인직의 소설 <은세계>가 연극으로 공연되었고, 새로운 신파 극단이 성립되어 대중적인 공연을 시작함.
- 일본 신파극의 수용은 1911년 임성구가 창립한 극단 혁신단이 <불효천죄(不孝天罪)>와 같은 작품을 공연하면서 시작됨.
- 신파극은 대중적인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일본 대중문화를 한국에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일제 강점기의 문학

- 한국 현대문학은 1910년 일본의 강제 점령으로 역사적 시련에 직면함.
- 일제에 의해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후 시행된 무단통치 정책 때문에 언론 출판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개화 계몽 시대의 문학에서 볼 수 있었던 자주 독립 의식과 문명개화에 대한 의지가 문학을 통해 표출될 수 없게 되었음.
- 일본에 건너간 한국인 유학생들을 통해 서구적인 개념에 대한 문학 논의가 이루어지고, 개인적 정서에 근거한 예술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짐.
- 이광수는 개인의 내면적 고뇌를 그린 단편소설 <소년의 비애>를 발표하고, 장편소설 <무정>을 발표하면서 문단 중심인물이 됨.
- <무정>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인식에 철저하지 않았으나, 개인의 운명적인 삶과 시대적 조건을 결합시킴으로써 근대적 성격을 인정받음.

- 일제 강점기 한국 현대문학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민족과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여주기 시작함.
- 3.1운동을 통해 촉발된 민족적 자기 각성에 힘입어, 문학은 자아의 발견과 개성의 표현에 적극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현실에 대한 관심을 확대함.
- <창조> <폐허> <백조> 등의 문예 동인지의 등장으로 문단이 형성되고, <개벽> 같은 잡지 발간으로 문학 창작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됨.
- 1920년대 초기의 문학은 자아의 각성과 민족적 현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근대문학의 기반.

- 1920년대 초기의 문학은 자아의 각성과 민족적 현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근대문학의 기반을 확대함.
- 소설은 암울한 현실에서 방황하는 지식인의 고뇌를 그리거나 비참한 노동자와 농민의 삶을 보여줌.
- 김동인은 <배따라기> <감자> 등을 통해 단편소설의 양식을 확립하면서 비극적 현실 때문에 급변하는 인간의 운명을 치밀하게 그림.
- 현진건은 <빈처> <운수 좋은 날>을 통해 고통스런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함.
- 염상섭은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통해 지식인의 방황과 좌절을 그리고, <만세전>에 황폐화되는 한국의 식민지 현실을 총체적으로 제시함.

- 시문학은 서구의 자유시 형태를 수용하면서 한국 근대시의 독자적인 형식을 확립함.
- 주요한의 <불놀이>는 시적 자아의 확립과 개성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시 형식을 확립하는데 기여함.
- 한국 근대시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기여한 김소월은 시집 <진달래꽃>에서 전통적인 민요의 율격을 재구성하여 서정의 세계를 시적으로 형상화.
- 이상화는 <나의 침실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에서 시대의 고통과 개인의 고뇌를 극복하고 식민지 현실에 대한 시적 인식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음.
- 한용운은 시집 <님의 침묵>에서 불교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민족 현실과 역사에 대한 신념을 형상화.

- 신파극의 영향에서 벗어나 근대극을 확립하려는 새로운 연극 운동이 일어남.
- 동경 유학생을 중심으로 극예술 연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토월회와 같은 극단이 조직됨.
- 조명희의 희곡 <파사>, 김우진의 희곡 <산돼지> 등이 발표되면서 극문학 발전의 토대가 마련됨.
- 1925년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을 중심으로 계급문학 운동이 일어나면서 문학을 통한 계급의식의 고양과 문학의 계급적 이념이 강화됨.
- 계급 문학 운동은 대중성 획득을 위해 노동자와 농민을 상대로 하는 노동문학과 농민문학 창작에 주력하여 최서해의 <탈출기>, 조명희의 <낙동강>, 이기영의 <고향>, 한설야의 <황혼> 등이 발표됨.

- 1930년대 한국 문학은 일본 군국주의 강화로 사상적 탄압에 직면함.
- 한국 문학의 주조를 형성하고 있던 집단적 이념 추구 경향이 사라지고 개인적 정서에 기초한 순수 문학의 다양한 경향이 등장함.
- <시문학> <시인부락> 등의 시 동인지 발간, <신동아> <조광> <중앙> 같은 월간 종합 잡지 발간으로 문예 영역 관심 확대, <문장> <인문평론> 등의 순문학잡지 발간, 극예술연구회 중심의 연극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소설은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거나 소설적 외장을 중시하는 작품들이 발표됨.
- 이상의 <날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김유정의 <동백꽃>,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이태준의 <까마귀>, 염상섭의 <삼대>, 채만식의 <탁류> 등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소설임.

- 순수시에 대한 지향과 함께 등장한 모더니즘 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김기림의 <기상도>, 김광균의 <와사등>이 발표됨.
- 1930년대 후반에는 삶의 근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를 위주로 하는 시 경향이 나타났는데, 서정주의 <화사집>, 유치환의 <청마시집> 등이 대표적임.
-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이육사와 윤동주 등의 시인들이 저항 의지를 노래하면서 민족의 정서를 지키려고 노력함.
- 극예술연구회의 창립과 함께 활발하게 전개된 연극 운동은 수준 높은 번역극의 공연과 창작극에 대한 관심으로 극문학의 전환이 이루어짐.
- 유치진의 <토막>, 함세덕의 <동승>, 오영진의 <맹진사댁 경사> 등이 사실주의적 연극의 새로운 성과로 평가받음.

분단 시대의 문학

- 한국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나, 사상과 이념의 분열 대립 속에서 열강의 정치적 책략에 휩쓸려 남북 분단의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됨.
- 정치 사상적인 분열은 문단에서도 남북한 문학의 분파와 갈등으로 나타남.
- 해방 직후 소설 문단에서는 이태준의 <해방 전후>, 박노갑의 <사십년>, 안회남의 <폭풍의 역사> 등이 월북 문인의 대표작으로 지목됨
- 시의 경우, 김기림의 <새노래>, 오장환의 <병든 서울>, 이용악의 <오랑캐꿈>, 임화의 <찬가> 등이 좌익 시단의 관심사가 됨.
- 희곡의 경우, 함세덕의 <고목> <기미년 3월 1일> <태백산맥> 등이 민족 연극운동의 대표작으로 평가됨.

- 민족 진영의 시인들은 일제 말기의 시적 작업을 정리하면서 이육사의 <육사시집>,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간행함.
-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의 <청록집>은 시를 통한 자연의 발견이라는 의미와 함께 해방 이후 서정시의 맥락을 이어가는 업적으로 평가됨.
- 서정주의 <귀족도>는 전통적인 율조를 바탕으로 토속적인 정감을 폭넓게 표현하고, 유치환의 <생명의 서>는 현실 삶에 대한 시적 인식의 확장을 보여준 시집으로 주목받음.

- 1950년의 6.25전쟁은 한국의 남북 분단을 고정시켜 놓은 비극적인 계기가 되었음.
- 195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전쟁의 상처와 혼란에서 벗어나기 시작함.
- <문학예술>, <현대문학>, <자유문학> 등의 종합문예지와 <사상계>, <신태양> 등의 종합지가 문학 활동의 새로운 기반이 됨.
-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 <등신불> <까치 소리> 등의 전후 소설은 인간의 숙명적인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원의 몸부림을 다룸.
-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인간 접목> 등은 분단과 전쟁 속에서 이루어진 삶의 비극적 양상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한 결과물임.

- 전후 세대 작가 가운데 장육학, 김성한, 오상원, 손창섭 등은 기성세대의 윤리 의식과 사회 도덕적 가치 개념에 대한 반항 의식을 소설로 형상화함.
- 박경리의 <불신시대>는 전후 사회적 혼란과 윤리 붕괴를 전면에서 다룬 작품이고, 전광용의 <꺼삐딴리>, 이범선의 <오발탄> 등은 암담한 현실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임.
- 전후 시는 시 정신과 방법의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여 개인의 정서와 감각을 중시하면서 전통적인 리듬에 근거하여 토속적인 자연을 폭넓게 시의 영역으로 끌어들임.
- 전후 희곡은 전쟁의 상처를 달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상을 그린 차범석의 <불모지>, 이념의 허구성과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대비한 차범석의 <산불>, 지식인의 나약성과 허위의식을 비판한 이근삼의 <원고지> 등이 대표작임.

- 한국 문학은 1960년 4.19혁명을 전후하여 새로운 전환이 일어남.
- 최인훈, 김승옥, 박태순, 서정인, 이청준, 홍성원 등의 새로운 문학 세대가 등장하여 전쟁의 현장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의 방식과 사회적 연관성을 검토하는 소설들을 발표함.
- 최인훈의 <광장>,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무진기행>,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등이 대표적인 소설임.
- 4.19혁명과 함께 현실적 생명력과 의지와 감동을 지닌 시가 요구되면서 김수영과 신동엽처럼 정서적 폐쇄성을 거부하고 문학의 현실 참여를 주장한 시인들이 주목받음.
- 희곡은 인간의 의지와 그 삶의 비극성을 극적으로 묘사한 천승세의 <만선>, 현대인의 모럴 의식과 애정 갈등을 파헤친 오태석의 <환절기> 등이 문제작으로 주목받음.

- 한국 사회는 1970년대 접어들어 산업화에 따른 사회계층의 분화와 빈부 격차의 심화, 지역적인 발전 격차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와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됨.
-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문학사상>, <시문학>, <현대시학>, <심상> 등의 창간으로 문학 활동 기반이 확대됨.
- 1970년대 한국 소설은 산업화 과정의 사회문제들을 천착하였는데, 이문구의 <관촌수필>, 황석영의 <객지>와 <삼포가는 길>,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윤홍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등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주목받음.
- 정치적 메커니즘과 인간 정신의 대응 관계, 인간성 상실과 자기소외, 풍속과 세태 풍자도 중요한 소설적 경향 가운데 하나이고, 민족 분단과 역사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요구한 분단소설도 등장하였음.

- 산업화 과정에 접어들면서 가장 뚜렷한 시적 경향을 보여준 것은 민중시를 지향하는 시인들의 작업으로 신경림의 <농무>와 <남한강>, 최하림의 <우리들을 위하여> 등이 문제작으로 주목받음.
- 고은의 <문의 마을에 가서>,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 정희성의 <저문 강에 sap을 씻고>, 김명인의 <동두천>, 김용택의 <섬진강> 등도 현실적 상황과 시적 상상력 사이의 긴장을 형상화한 시집으로 평가됨.
- 황동규의 <삼남에 내리는 눈>, 정현종의 <사물의 꿈>, 김광규의 <아니다 그렇지 않다>,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정호승의 <새벽편지> 등도 일상적 삶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정서를 심화 확대한 시집으로 평가됨.
- 희곡의 경우, 알레고리 기법으로 정치적 풍자를 시도한 이강백의 <파수꾼>, 전통의 현대화를 시도한 최인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등이 문제작으로 평가됨.

1980년대 이후 한국 현대문학